

금토 **배가본드** 끌고

수목 **SECRET**
시크릿부티크
BOUTIQUE 민다!

2019년 9월,
SBS 드라마 세상이
온다

극본-연출-연기-영상-스케일, 2019 최고 기대작 <배가본드>

올 가을 2019년 최고 기대작 두 편이 동시에 방송된다.

9월 20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금토드라마 <배가본드>는 극본, 연출, 연기 3박자에 영상미와 스케일까지 더해져 명실 공히 2019 최고 기대작으로 꼽힌다. 이승기-배수지-신성록-문정희-백윤식-문성근-이경영-이기영-김민중-정만식-황보라-장혁진 등 역대급 캐스팅에, <낭만닥터 김사부>, <미세스캡> 등을 연출한 유인식 감독이 <돈의 화신>, <샐러리맨 초한지>, <자이언트>를 함께 만들었던 장영철, 정경순 작가와 손잡고 네 번째 성공신화를 써내려간다. 또 <별에서 온 그대>, <낭만닥터 김사부> 등에서 빼어난 영상미를 보여준 이길복 촬영감독이 가세, 모로코와 포르투갈을 오가는 해외 로케 촬영으로 스케일이 더해진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배가본드>는 민항 여객기 추락 사고에 연루된 한 남자가 은폐된 진실 속에서 찾아낸 거대한 국가 비리를 파헤치는 드라마이다. 가족도, 소속도, 심지어 이름도 없는 '방랑자(Vagabond)'들의 위험천만하고 적나라한 모험이 펼쳐지는 첩보액션멜로다. 이승기는 액션영화계를 주름잡겠다는 다부진 꿈을 안은 열혈 스텐트맨 차달건 역을, 배수지는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숨기고 주 모로코 한국대사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블랙요원 고해리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민항 비행기 추락사고 후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한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은폐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된다. 사전 제작으로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인 <배가본드>는 9월 20일(금) 밤 10시부터 방송된다.

흥행불패 김선아, 또 한 번의 신화 쓴다 <시크릿 부티크>

2019년 또 하나의 기대작 <시크릿 부티크>는 9월 18일(수)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시크릿 부티크>는 목욕탕 세신사에서 정재계 비선실세로 거듭나는 제니 장이 국제도시 개발이라는 황금알을 손에 쥐고 재벌그룹 데오家的 여제 자리를 노리면서 벌어지는 심리대전을 담는다. 김선아-장미희-박희본-고민시-김재영-김태훈-류승수-한정수 등 믿고 보는 배우 라인업과 데뷔작 <인생 추적자 이재구>로 주목받은 허선희의 탄탄한 대본, 그리고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닥터 챔프>, <칼잡이 오수정> 등을 연출한 박형기 감독과 김선아가 <여인의 향기> 이후 오랜만에 재회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김선아가 맡은 제니 장은 섹시하고 우아한 외모와 달리 권력지향적인 남성들의 두뇌회로를 가진 여자다. 제니 장은 아름다움과 지략, 온정과 협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자신의 아픔이 서려있는 데오家를 서서히 옥죄어간다.

박희본은 데오家 장녀 위예남 역을 맡았다. 예남은 자신의 하녀로 들어왔던 제니 장이 거물로 성장해가자 열등감과 적의를 느낀다. 고민시는 상대의 수를 간파하는 데 천부적 재능을 지닌 아마추어 바둑기사 이현지 역으로 출연, 제니 장과 끈끈한 신뢰를 쌓아간다. 데오그룹의 여제 김여옥 역은 장미희가 맡았다. 여옥은 시아버지 작고 후 데오그룹 총수의 자리까지 올라선 욕망의 화신이다. 김재영이 맡은 윤선우는 제니 장의 보육원 동기이자 J부티크 변호사로, 제니 장에 대해 깊은 연민이 있다. 김태훈은 제니 장을 등에 업고 후계구도 경쟁에 뛰어드는 데오家的 장남 위정혁 역으로 출연한다. 제니 장과 연인이었으나 현재는 위예남의 남편이자 검찰청 특수부 부장 차승재 역은 류승수가 맡았다. 장르물의 선 굵은 서사와 여성들의 섬세하고 치밀한 심리게임을 결합한 <시크릿 부티크>는 9월 18일(수) 밤 10시부터 첫 방송된다.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영예

이윤민 PD, 조동찬 기자, 하현종 기자, 배우 김남길 개인상 수상

9월 3일(화) 상암동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한국방송협회(회장 박정훈) 주최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연출: 정우진, 이관원, 윤종호)이 예능버라이어티TV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죽어가는 골목상권과 음식특화거리를 되살리는 지역경제 심폐소생 프로젝트이다. '요식업계의 마이더스 손' 백종원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장사 필살기와 궁극의 레시피를 제공하여 죽은 거리를 손님이 가득찬 거리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은 시청자에게 드라마틱한 감동을 주었다. 2018년 1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2049 시청률을 평균 3.21을 기록하며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열혈사제>(극본: 박재범, 연출: 이명우)는 중단편드라마 부문 상을 받았다.

<열혈사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회 이슈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 시청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열혈사제>는 8월 28일(수)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인터내셔널 드라마 어워즈에서 한류드라마 최우수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개인상 부문에서 SBS는 네 명의 수상자를 냈다.

프로듀서 부문 상을 받은 이윤민 PD(시사고양본부 부국장)는 2006년부터 13년째 <SBS 스페셜>을 연출하며 '끼니반란' 시리즈, '설탕전쟁', '칼로리亂' 등의 작품을 통해 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 외에도 환경, 통일 문제에 천착해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다수의 작품을 제작했다.

보도기자 부문 상을 받은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보도본부 차장)는 일반적인 건강 관련 의학 정보 외에 가슴기살균제 문제, 인보사 사태 등 우리 사회를 관통한 시의성 있는 이슈의 이면을 깊이 있게 취재하고 보도해 국내 보건으로 보도를 선도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주요 이슈였던 코오롱 인보사 사태는 조동찬 기자의 심층 취재와 단독 보도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고 결국 인보사 허가 취소로 이어졌다. 뉴미디어프로그램제작 부문 상을 받은 하현종 기자(보도본부 차장)는 SBS의 소셜미디어 채널인 스프스뉴스를 2년여 맡아 오는 동안 급변하는 뉴미디어 트렌드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팀의 방향과 체질을 변모시켰다. 특히, 스프스뉴스 리브랜딩과 안정적인 매출 증대, TV/모바일 크로스오버 프로



정우진 PD 조동찬 기자 이윤민 PD 박정훈 사장 김민형 아나운서 하현종 기자 한정환 드라마본부장 이명우 PD 배우 김남길

그램인 <돈워리스쿨> 등을 통해 플랫폼 확장과 독자 생존이 가능한 지상파 모바일 채널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배우 김남길은 <열혈사제>의 김해일 신부 역으로 연기자 부문 상을 받아 <열혈사제> 팀에 기쁨을 더했다.

한국방송대상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방송 시상식으로, 1년 동안 지상파 방송을 빛낸 수많은 시사, 보도, 드라마, 교양,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우수했던 작품

과 방송인을 발표한다. 올해는 272편의 작품과 75명의 방송인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돼 작품상 25편, 개인상 19명이 선정되었다.



정우진 PD



이명우 PD



이윤민 PD



조동찬 기자



하현종 기자

새로운 시도, 다양한 추석 특집으로 볼거리 풍성한 한가위

<술이 더 해로운가, 담배가 더 해로운가> 그것이 알고 싶다



과거 헤비 스모커였으나 더 즐거운 애주 라이프를 위해 담배를 끊은 신동엽, 그리고 술은 한 잔도 못하지만 담배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김상중.

추석특집 <신동엽 Vs. 김상중 - 술이 더 해로운가, 담배가 더 해로운가>(연출: 이기현)는 연예계 대표 애주가 신동엽과 대표 애연가 김상

중이 만나 '술이 더 해로운지, 담배가 더 해로운지'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메디컬 다큐 정보 사이언스 버라이어티 쇼이다.

물론 둘 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더 나쁜지를 가려본다면 어떨까? 백해무익, 간접흡연 문제 등 이미 공공연한 사회 문제로 규정돼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흡연이라면, 음주는 개인적 건강 이슈부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여겨진다. 쉽사리 답을 내릴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은 100명의 청중 앞에서 논리 대결을 펼친다. 또 최신 연구동향과 실험들, 그리고 음주와 흡연에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궁금한 점에 대해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실험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과거 SBS의 인기 프로그램 <호기심천국>을 떠올리게 하며, 정확한 근거와 수치로 설득력을 높이는 것은 SBS 시사교양의 작품답다. 9월 14일(토) 밤 11시 20분, 15일(일) 밤 11시, 2부작으로 방송된다.

백종원의 선한 영향력 지역 경제 회생 프로젝트 <맛남의 광장>



백종원의 <맛남의 광장>이 9월 13일(금)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된다.

추석특집 파일럿 <맛남의 광장>은 지역 특산품으로 신메뉴를 개발, 휴게소, 철도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만남의 장소에서 여행객들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3대천왕>-<푸드트럭>-<골목식당>에서 백종원과

호흡을 맞춰온 이관원 PD가 연출하며, 양세형, 백진희, 박재범이 출연한다.

이들은 지난 8월, 황간 휴게소에서 충북 영동군의 특산물을 이용한 이색 메뉴를 판매했다. 백종원은 표고버섯으로 영표국밥(영동 표고버섯 국밥)과 영표덮밥(영동 표고버섯 덮밥), 옥수수로 멕시코 스타일의 멕지콘(멕시코 지니 콘꼬치), 풍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비상품(상품성이 떨어지는) 복숭아로 촉복파이(촉촉한 복숭아 파이)를 개발했다. 양세형은 영표국밥과 영표덮밥, 백진희는 멕지콘, 박재범은 촉복파이를 맡아서 준비했던 재료를 모두 소진하고 단 시간에 약 500인분을 판매하는 기적을 보여줬다.

백종원과 멤버들의 케미도 돋보였다. 양세형은 특유의 간직 캐릭터로, 백진희는 백종원의 단맛 취향을 저격한 간식으로 백종원을 웃게 했다. 다양한 매체에서 백종원 덕후라 자처했던 박재범은 요리에 너무나 무식한 모습으로 백종원을 당황시켰다. 박재범이 백종원에 의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시청 포인트다. <맛남의 광장>은 침체된 농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또 한번 공익 예능의 탄생을 기대해볼 만하다.

BTS의 데뷔부터 현재까지 <BTS 예능연대기>



디지털 시대, 스타들의 과거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SBS 예능 출연 명장면을 모은 추석특집 <BTS 예능 연대기>가 9월 11일(수) 밤 10시에 방송된다.

<BTS 예능연대기>는 김성주, 장예원 아나운서, 정형

돈 진행으로, BTS 데뷔 때부터 현재까지 SBS 예능에 출연한 작품 중 다시 봐도 재미있는 BEST 장면을 엄선하는 랭킹 쇼 프로그램이다. 과거 영상에서 발견하는 BTS의 다양한 매력은 물론, 그 당시 출연자들과의 인터뷰나 리액션 캠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재미를 선사한다.

<BTS 예능연대기>는 예능D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첫 방송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방송 플랫폼의 결합형 모델로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SBS ENTER PLAY에서 업로드 중인 구작 하이라이트 콘텐츠를 테마 별로 묶어서 방송 포맷과 결합한 것으로, 스튜디오 녹화 중 일부를 8월 30일(금) 유튜브 라이브로 선공개하여 방송과 유튜브의 시너지를 도모하기도 했다. 이양화 PD는 "디지털 시대에 일반인들의 콘텐츠 접근 장벽이 현저히 낮아져 스타의 과거 영상을 찾아보고 추억을 향유하는 새로운 문화 소비의 행태가 생겨났다. SBS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영상을 잘만 활용한다면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손과 금손이 만나 수작 탄생 <수작남녀-CRAFTSMAN>



추석특집 <수작남녀-CRAFTSMAN>(이하 <수작남녀>)이 9월 13일(금) 저녁 6시에 방송된다.

<수작남녀>는 수작(秀作)을 만들어내는 미다스의 손들과 그 노하우를 전수받은 연예인이 함께 새로운 작품에 도전하는 수작(手作) 프로젝트를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배성재 아나운서

와 방송인 이지혜가 진행을 맡고, 연예계 금손 재희와 한보름이 출연한다.

재희와 한보름은 정크아트, 디오라마, 미니어처, 실사 그림 등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국내 수많은 미다스 손들을 찾아간다. 감탄을 자아내는 이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법을 전수받아 이들과 콜라베이션 프로젝트를 펼치게 된다.

<수작남녀>는 기존의 연예인 체험 프로그램과 다르다. 긴 시간 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품 제작에 연예인 출연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재희와 한보름이 각기 공예가와 팀을 이루어 대결구도로 수작(秀作)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 <수작남녀>의 관전 포인트다. 작품이 완성된 후엔 일반인 판정단이 투표를 진행, 최고의 크래프트 아이템을 선정한다.

박진용 PD는 "방송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의 퀄리티가 무척 높다"며 "연예인들의 열정에 감탄했다. 시청자분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BS 모비딕, 사업 영역 한 단계 넓혔다

콘텐츠 유통 및 콘텐츠 커머스 사업으로 본격 중국 진출 시동



SBS 박재용 모바일제작사업팀장 망고미디어 김우창 부회장



라경카라반 황인봉 대표 SBS 박재용 모바일제작사업팀장

SBS 모비딕은 8월 20일(화) (주)망고미디어그룹과 중국 뉴스 플랫폼에 모비딕 콘텐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SBS 모비딕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이미 구독자 1억 명 이상을 보유한 심천자욱문화전문매유한회사를 통해 바이두(百家号), 쉐도디아우(趣头条账号), 텐센트(企鹅号) 등 15개 중국 내 대표 포털 뉴스 플랫폼에 선보이게 된다. 양사는 2020년에 550억 위안(한화 9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Short Clip' 시장의 30%를 한국 콘텐츠가 점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또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Short Clip' 외 정규방송 론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이 얼어붙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에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BS 모비딕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전문 기업 라경카라반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내 '타오Live' 서비스에 공급될 모바일 커머스 콘텐츠를 공동제작하기로 합의했다. 뉴미디어 채널에 특화된 노하우를 쌓아

온 SBS 모비딕은 이번 제휴로 중국에서 본격적인 콘텐츠 커머스를 시도한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중국 최고의 쇼핑 이벤트 기간인 '쌍11절'을 시작으로 모바일 커머스 홈쇼핑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인기 브랜드를 포함해 마케팅과 유통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합작의 특징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라이브 판매 채널(PGC) 안에 한국 전문 채널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의 우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는 점이다. 왕홍(*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개인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상품 전문 채널로 고정 편성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월 2회 진행되는 한국 상품 전용 라이브 판매 방송은 한 회에 100억 원 이상을 판매하는 최상위급 왕홍의 출연을 통해 월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SBS 모비딕은 이번 중국 내 콘텐츠 유통 및 커머스 시도를 계기로 SBS의 대표 디지털 채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편 사업 영역을 해외로 넓혀갈 예정이다.

온 SBS 모비딕은 이번 제휴로 중국에서 본격적인 콘텐츠 커머스를 시도한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중국 최고의 쇼핑 이벤트 기간인 '쌍11절'을 시작으로 모바일 커머스 홈쇼핑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인기 브랜드를 포함해 마케팅과 유통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합작의 특징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라이브 판매 채널(PGC) 안에 한국 전문 채널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의 우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는 점이다. 왕홍(*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개인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상품 전문 채널로 고정 편성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월 2회 진행되는 한국 상품 전용 라이브 판매 방송은 한 회에 100억 원 이상을 판매하는 최상위급 왕홍의 출연을 통해 월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SBS 모비딕은 이번 중국 내 콘텐츠 유통 및 커머스 시도를 계기로 SBS의 대표 디지털 채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편 사업 영역을 해외로 넓혀갈 예정이다.

'요한, 씨돌, 용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



이큰별 PD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 박해인 스크립터

<SBS 스페셜>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씨돌, 용현'(연출: 이큰별/이하 <요한, 씨돌, 용현>)이 방통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받았다. <요한, 씨돌, 용현>은 수준 높은 기획과 구성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역사적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해 온 한 남자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방통심의위는 2018년 5월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작 중에 가장 뛰어난 한 편을 골라 최우수상을 주고 있는데 SBS는 이번이 첫 수상이다. 시상식은 8월 21일(수)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한편, <요한, 씨돌, 용현>은 9월 말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9월 24일(화)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점, 26일(목) 일산벨라시티 잔디광장에서 상영된다. 또 26일(목)에는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점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람의 역사와 미디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강제 징용사건 관련 정부 문건' 등 이달의 방송기자상



전형우 기자 정경윤 기자

'강제 징용사건 관련 정부 문건' 단독 및 연속보도(박상진, 박원경, 전형우)가 제13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뉴스 부문을 수상한 위 보도는 강제 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의 한일관계 경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미진했던 점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했다는 평을 받았다. '청년 프로젝트'(정경윤, 원종진, 이경원, 최재영, 김민정, 정혜경, A&T 제일)는 뉴미디어 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청년 프로젝트'는 거대담론 위주의 언론 환경 속에서 '사소한(작은)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 준 점이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8월 29일(목)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녹두꽃> 신경수 PD 이달의 PD상



신경수 PD 안수영 한국PD연합회장

금토드라마 <녹두꽃>(연출: 신경수, 작가: 정현민)이 한국PD연합회가 주는 233회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동학농민항쟁을 소재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욕망과 심리를 묘사한 <녹두꽃>은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시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했을 뿐 아니라, 현대의 문제점까지 돌아보게 하는 묵직한 울림을 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식당 운영의 노하우 담은 <골목식당> 책 나왔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식당들의 문제점과 솔루션을 담은 책이 나왔다. 프로그램에 방송됐던 가게 중 현재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혹은 식당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케이스를 엄선했다. 천 개의 식당이 있다면, 천 개의 상황이 있다. 이 책에서는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식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백종원의 노하우가 담긴 솔루션을 알려주어 식당 사장들이 실제적인 팁을 얻을 수 있다. 서울문화사 / 15,800원

